

| | |
|-----|---------------------|
| 민예전 | <h1>BUDDHANARA</h1>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특별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이달의 법구경: - 아무리 남을 위한 큰일일지라도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말라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그 일에 항상 전념하라.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응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003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불자의 사명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이렇게 열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의 획득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성불에 있다면 모든 불자는 마땅히 그러한 뜻을 향해 발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라한이나 벽지불임을 자처하면서, 모든 부처가 오로지 보살을 교화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불자가 아니며, 또 스스로 이르기를 구경열반을 얻었다고 하면서 무상정등각을 다시 지구(志求)하지 않는다면 이 야말로 증상만자(增上慢者)인 것이다."<법화경 권 2>

오늘날 서구학자 중에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을 열반에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견해 또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다. 불승설의 뜻을 더욱 뚜렷이 하기 위해 석존은 다음과 같은 화택(火宅)의 비유를 들고 계신다. 부유한 노년의 한 장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저택을 바라보니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자기 아들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유희에 빠져 있다. 집에는 좁은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유희에 탐착한 아이들은 불이 났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궁리하던 끝에 장자는 방편으로 애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양이 끄는 수레(羊車)·사슴이 끄는 수레(鹿車)·소가 끄는 수레(牛車)와 같은 진기한 수레가 문밖에 있으니 속히 나오너라. 바라는 대로 주겠다." 완구를 좋아하는 애들인지라 서로 밀치면서 모두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때 장자는 애들이 모두 불난집(火宅)을 무사히 빠져나온 것을 확인한 뒤 그들에게 다같이 흰 소(白牛)를 맨 커다란 수레(白牛車)를 나눠준다.<법화경 권 3>

이 화택유(火宅喻)에서 양이 끄는 수레(羊車)·사슴이 끄는 수레(鹿車)·소가 끄는 수레(牛車)는 각각 성문승·벽지불승·보살승에 해당되고, 흰 소가 끄는 수레(白牛車)는 일불승(佛乘)에 해당된다. 처음에 삼승으로 유인하여(方便) 뒤에 다같이 일불승(一佛乘)에 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석존은 이렇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성불에 있음을 설한 다음, 제자들에게 무상정등각의 기(記, vyakarana)를 주고 계신다. 제자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리불(Sariputta)에게 수기(授記)한 것을 예로 들어 보자. 그대 사리불은 미래 무량겁에 무수한 부처를 공양하고 정법을 봉지(奉持)하여 보살행을 갖춘 뒤에 부처가 되리니, 이름을 화광여래(華光如來)·응공(應供)·정변지·명행족·선서·세간해·무상사·조어장부·천이사·불세존이라 할 것이다. 국명은 이구(離垢)요, 겁명(劫名)은 대보장엄(大寶莊嚴)이요, 불수(佛壽)는 이십소겁(十二小劫)이며, 정법주세(正法住世)는 32 소겁(三十二小劫)이요, 상법주세(像法住世) 또한 32 소겁이리라.<법화경 권 3> 불명(佛名)·국명(國名)·겁명(劫名) 등을 낱낱이 분별해주고 있으며, 불멸후에 법화경을 읽고 발심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수기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해져 있다. '기(記, vyakarana)'라는 말은 분석·대답·문법 등의 뜻을 가진 말인데, 여기에서는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서구학자들은 이 술어를 예언(prophecy)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불자에게 성불에 대한 그러한 기를 주는 까닭은 무엇일까? 수기설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글자 그대로 불교를 신수(信受)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차 부처가 될 것이며, 또 마땅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처가 된 사람은 불국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기의 내용에 불명과 국명이 밝혀져 있는데에서 그런 뜻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劫名이 명기되어 있는데에서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법화경은 반야경이 제법개공(諸法皆空)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불국토 건설·중생교화를 二大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불국토 건설은 불토정화(佛土淨化)라고도 말해지는데, 사회를 정화하여 정법이 행해지는 이상적인 복지국가 를 건설하는 것을 뜻한다. 사리불의 수기에는 "그 땅은 평등하고 청정엄식(淸淨嚴飾)하며 안온풍락(安隱豐樂)하여 천신과 인류가 치성하며 유리로 땅이 되고 입교(入交)의 길이 있으며 황금의 줄이 그 경계를 표시하여 길가에는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 항상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법화경 권 3>고 묘사되고 있다.

아미타불의 서방정도와 미래불 미륵의 용화세계도 이런 불토의 일종이다. 중생교화는 괴로움으로부터 중생을 제도하여 요익안락(饒益安樂)케 하는 것을 뜻한다. 지옥으로부터 천신에 이르는 모든 중생류는 생·로·병·사의 무량(無量)한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으므로, 선한 일은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마음 속에는 탐(貪)·진(瞋)·치(痴)의 불길기 꺼질 날이 없고, 입으로 몸으로 갖은 악행을 범하고 있다. 이러한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불보살은 그들에게 먼저 삼승을 설하여 괴로움으로부터 제도한 다음, 일불승으로써 무상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중생교화라고 한다.

한국에서의 봉축행사 엿보기

‘지금은 봉축 준비중’ 설레는 한국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은 지금 자비의 등을 환하게 밝히고 상생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지방마다 마을마다 부처님오심을 축하하는 등불을 밝히고 “가족을 부처님처럼” “이웃을 부처님처럼” 삼고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인류에게 참 삶의 길을 밝혀준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한국 각 지역 사암연합회·신행단체·사찰 등의 주요 봉축프로그램을 담았다.

부산-경남-대구-경북

4월 25일 부산역광장서 열리는 연등축제 장엄 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부산불교연합회 봉축행사가 시작된다. 26일 부산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산불교 봉축합창제가 열리고 5월 3일 부산역광장서 부산발전기원 삼천배법회를 갖는다. 마산창원불교연합회는 4월 25일 마산 육호광장에서 봉축연등탑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5월 3일 창원시청과 마산운동장에서 각각 마산·창원 연등축제가 열린다. 대구시봉축위원회는 ‘지하철 참사 아픔을 희망으로’란 주제로 5월 4일 대구 두류야구장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4월 26일 국채보상공원에서 봉축 점등식을 갖고 30일 프린스 호텔에서 ‘불타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전남북

전북전주봉축위원회는 4월 10일 통일로에서 기원탑 점등식을 개최하고 4월 16일 35사단 세병호에서 봉축연등제를 봉행한다. 4월 25일에는 전북불교회관에서 등만들기 대회를 갖고 4월 27일 정혜사에서 어린이 대잔치를 연다. 5월 3일 전일초등학교에서 연등축제를 갖고 5월 8일 금산사에서 법요식을 봉행한다. 광주사암연합회는 4월 25일 전남도청앞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5월 2일 광주공원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8일에는 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을 갖는다. 의정부사암연합회는 4월 30일 의정부 평화의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과 점등식을 봉행하고 5월 2일 시민회관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포천사암연합회는 5월 4일 포천군민회관에서 연등축제를 개최하고 평택사암연합회는 5월 8일 평택시내에서 연등축제를 연다.

강원-제주

강원도는 원주사암연합회와 신홍사·월정사를 중심으로 봉축행사를 연다. 원주사암연은 4월 16일 치악산 구룡사서 봉행하는 봉축산신대제를 시작으로 29일 원주역서 봉축탑점등법회를 개최하고 30일 원주 예술회관에서 봉축연합합창제를 연다. 28일 통일전망대에서 통일기원 광명등 점등법요식을 봉행하고 29일 설악산 비전대에서 장애인 하나로 등반대회도 열 계획이다. 제주도내 각사찰은 5월 8일 일제히 봉축 법요식을 봉행한다. 제주도불교연합회봉축위원회는 4월 19일 제주시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5월 8일 제주도종합경기장 대광장에서 연등축제를 연다. 이에 앞서 봉축위는 4월 26일 제주의 발전과 도민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소식 NEWS

-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국사 (Buddhanara Temple) 불자님들이 불철주야 봉축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월 4일에 있을 2547년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위해서 연등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법당에 다는 일년등은 황금색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가끔씩은 시간을 내셔서 연등을 만드는 불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완성된 연등은 부처님 오신날 일주일 기도를 하고 일년간 법당에 겁니다. 연등을 켜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함임과 동시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성의 등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 일년등 접수를 받습니다. 일년동안 법당에 달 연등의 동참금은 \$50.00 입니다. 현재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나 생활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총무님께 말씀드려서 동참금을 절충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수님이나 아는 분들에게 포교차원에서 연등선물을 하실 분들도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포교차원에서 사찰에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등 색깔은 전통 연등색깔이라고 하는 빨간색 입니다. 가장 작고 예쁜 애기등도 약 100개 정도 준비 합니다. 가격은 \$1.00 입니다.
- 모두 기뻐해 주십시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불국사 (Buddhanara Temple)가 이곳 세인트루이스에 생긴지 이달로 꼭 11개월이 됩니다. Columbia 지역에 불국사 콜롬비아 법당이 탄생이 됩니다. 첫 콜롬비아 법등 법회는 4월 26일 (토요일) 10시 30분에 Activity & Rec Str. ARC Room A에서 갖습니다. 천수경, 스님 법문, 불국사 소개에 이어서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서 모두가 연등을 만들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날 점심공양은 불국사 신도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에는 참석을 못하시는 불자님들도 첫 지역 법등 창립기념 법회겸 부처님 오신날 기념행사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불국사에서 올해의 목표가 “전법의 해”에 걸맞게 지역 법등 조직에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 현재 수계식 명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도 5계” 수계식은 5월로 예정되어 있고, 불명이 없으신분은 필히 신청해 주십시오. 불명이 있으신분도 다시 가지고 계신 불명으로 수계식에 동참해 주십시오.
- Maitreya Project’s Heart-Shrine Relic Tour 가 주최로 “The Relic Tour Visits in St. Louis, MO ((부처님 및 부처님 제자분들의 사리친견법회)”가 4월 9일 수요일날 1:30분에서 7시 30분 까지 Washington University, Mallinckrodt Student Center, Lambert Lounge, 3rd Floor above Edison Theater 에서 열립니다. 부처님 사리 및 부처님 10대 제자분들의 사리를 미국에서 친견할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 Mimi Collection 에서 사찰에 줄장미 10그루를 시주해 주셨습니다. 한국 후원회에 몸담고 계신 이 정상 불자님께서 초과일 기념품으로 염주 주머니 40개, 지갑 35개를 시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불국사 총무님 가정에 예쁜파님이 이달말 경에 이 세상에 나옵니다. 김 미정 불자님의 순산을 기도 드립니다.
- 초과일 이전에 불국사에서는 모든 가든 정리를 끝낼려고 하므로 가든 운력이 있습니다. 운력이라는 뜻은 신도님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사찰일을 서로 도와서 마무리짓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지만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4월 첫째 토요일, 일요일; 가든작업, 연등 제작 작업.; 4월 둘째 일요일; 가든 작업 (넝쿨 작업, 잡초 제거 작업); 4월 셋째 일요일; 흙 작업.; 4월 넷째 일요일; 마무리 가든 정리 작업 - 모든 운력은 정기 법회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 4월 첫째주 에는 불국사 신도님들의 회식이 Mongolian BBQ & International Buffet 에서 저녁 6시부터 갖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